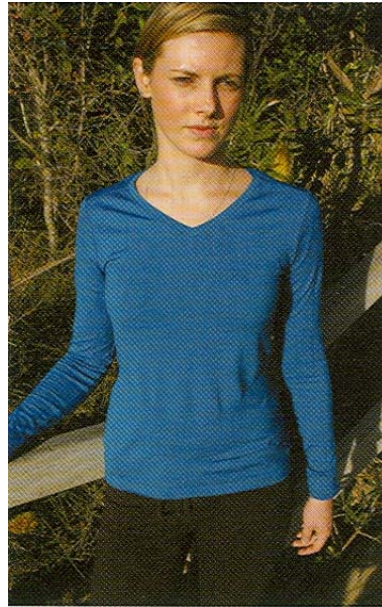


NILIT사와 LincSpun사 공동으로 체온 조절 원사 개발



NILIT사와 LincSpun사는 체온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원사 개발에 착수하였다.

스포츠웨어, 무용복과 양말 등에서의 사용을 위해 LincSpun의 독점 기술을 이용하여 메리노 양모와 NILIT의 나일론 66 텍스처사 및 아쿠아리우스(Aquarius)원사를 혼방하여 Trinomax AQ를 개발하였다. 메리노 양모는 부드럽고 체온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하였고, NILIT의 나일론 66 텍스처사는 내구성을 위해 사용하였다.

아쿠아리우스 원사는 3개의 T형 단면을 통해 우수한 수분 확산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원사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세탁 내구성을 가진다.

Trinomax 원사는 신속하게 수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착용자가 최

적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연사한 섬유는 강한 내구성과 경량성을 나타내는 직물을 만든다.

이번 Trinomax AQ의 개발을 위해 NILIT의 나일론 66 원사를 도입한 것은 우수한 품질 때문이며, 천연의 부드러움과 첨단 수분확산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스포츠웨어, 활동복, 양말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리노 양모와 NILIT의 아쿠아리우스 원사의 결합은 운동 선수를 위한 최적의 원단을 창출할 것이다.